

## “아이들 가르치다 제가 외려 어른 됐어요”

글 채승웅 작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이해연 장학생은 서울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주 화·목요일 3시간씩 무용을 가르친다

아산재단의 장학제도는 독특하다. 매년 성적이 우수한 학생뿐 아니라 환경이 어렵거나(나래장학생) 장애가 있는(다솜장학생) 학생, 군인·경찰·소방관의 자녀(MIU자녀장학생), 여기에 자신의 재능을 주변과 나누는(재능나눔장학생) 학생들을 함께 지원하는 까닭이다. 1977년 설립된 해부터 장학사업을 펼친 아산재단은 2015년에도 고등학생(844명)과 대학생(900명),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유학 온 대학원생(10명) 등 모두 1,754명을 선발해 장학금 50억 원을 지급했다.

이 중 재능나눔장학생은 130명인데, 이해연(21·이화여대 무용과 3) 학생은 서울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초등학생 3~4명에게 한국무용을 가르친다.

“지난해 말, 학교 홈페이지에서 아산재단의 장학생 선발공고를 봤어요. ‘무용으로 봉사 활동할 수 없을까?’ 생각하던 시기였죠. 아산장학생에 선발된 뒤 올해 3월부터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녀는 대학 진학 후 여러 봉사활동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사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한국무용 수업이어서 학부모와 아이들의 호응이 높다

회봉사'라는 교양수업을 들으며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다녔다. 유기견 입양 캠페인을 하거나, 교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쳤고, 서울시 빛초롱 축제에서 안전요원을 하기도 했다. 재능나눔장학생에 지원했을 때도 그녀의 다양한 봉사 경험이 많은 보탬이 됐다.

무용 수업은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한다.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한국무용 수업이어서 학부모와 아이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복지관 담당자인 이해진 교육교사도 “이해연 학생이 열심히 가르쳐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 이런 장학제도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 리틀엔젤스 예술단서 활동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아이들이 동작을 잘 기억하고 따라할 때예요. 장난기 넘치는 아이들이지만 춤을 배울 때는 무척 집중하거든요. 무용을 전공하는 아이들이 아니어서 완벽한 동작보다는 한국무용의 특성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학교 수업을 따라가려면 버거울 때도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면 힘든 일들을 금방 잊어버려요.”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그녀에게 또 다른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1994년 서울에서 2녀 중 차녀로 태어났고, 유치원에 다니며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다.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배웠어요. 언니를 보면서 저도 무용을 하고 싶다고 엄마를 졸랐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리틀엔젤스 예술단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리틀엔젤스 공연을 하며 한국무용의 기초를 다졌다. 하지만 5학년이 되던 해, 충격적인 일을 겪는다. 일본에서 한 달 동안 공연하고 온 사이에 부모님이 이혼한 것이다. 그녀는 언니,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는데 언젠가부터 조금씩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리틀엔젤스 연습을 빼먹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거나, 머리를 짧게 잘라 반항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리틀엔젤스 활동을 인정받아 선화예술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우울한 생활은 중학교 2학년 까지 계속됐다. 무용을 계속하려면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했지만 모든 것에 흥미를 잃었다.

“그냥 놀고만 싶었어요. 친구들이 인문계 고교로 진학하려고 해서 저도 그럴까 했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무용에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무용 연습을 재개했다. 하위권이었던 무용 실기성적은 금세 상위권으로 치솟았다.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선화예고에 진학했다. 고등학교에서는 개인레슨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빈 연습실에서 혼자 음악을 틀어놓고 연습하거나, 집에서 거울을 보며 동작을 반복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만족스러운 수능점수로 이화여대 무용과에 합격했다.

“제 꿈은 국립무용단 무용수예요. 하지만 그곳에 못 가더라도 어딘가에서 무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잠시 방황의 시기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제법 어른이 됐다고 생각한다. 부모님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봉사가 이런 성숙에 도움이 된 듯하다.

“한국무용은 춤추는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춤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중이에요(웃음). 앞으로 무용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춤꾼이 되겠습니다.”